

여수시, 마이스 산업 활용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지역 연계 마이스 관광 상품 개발
싱가포르 등 여행사 초청 팸투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협력 강화



여수시는 최근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와 공동 팸투어를 진행했다. 여수시는 마이스 산업을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수시 제공**

여수를 방문하는 마이스(MICE) 관련 해외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마이스 산업'이 여수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시는 낮은 국제적 인지도와 취약한 교통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 해외 인센티브 단체 유치 등 외래 방문객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의 마이스 산업 육성 노력이 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다양한 국가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 위해 몽골과 뉴욕, 싱가포르, 대만 등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지방공항 연계 상품 개발을 위한 몽골 여행사 초청 팸투어(몽골지사, 현지 여행사 6) △지방 연계 마이스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뉴욕 한인 여행사 초청 팸투어(뉴욕지사, 현지 여행사 12) △한국인이 사랑하는 섬과 미식 여행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싱가포르 여행사 및 언론인 초청 팸투어(싱가포르지사, 현지 여행사 23) △대만 예능프로그램(Hi 영업중, 촬영대만지사) 등이다.

협력사업을 통해 지난 2022년 여수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만8439명이었던 것에 대비, 지난해 23만920명으로 폭증했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24만 509명이 여수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해외 기업 마이스 행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아권 국가의 '주요 인센티브 그룹 전문 여행사'와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해 활발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YEOSU MICE DAY' 시책을 통해 미국과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200여 개 해외 여행사와 언론인 등 관계자를 온라인으로 초대해 실시간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마이스산업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마이스산업 홍보 강화로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 매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는 수도권에 비해 글로벌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며 "관광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위해 여수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이순신·환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여수시는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이순신도서관과 환경도서관이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인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강연과 탐방을 결합한 인문 프로그램 사업이다.

이에 이순신도서관에서는 '색(色)의 정원'을 주제로, 환경도서관에서는 '환경을 품은 그림책'을 주제로 각각 8번의 강연과 탐방 1회, 후속모임 1회를 진행한다.

이순신도서관은 컬러 인문학전문가 김준희 원장과 색채전문가 문은배 교수를

초빙, 다양한 색채 이야기와 한국의 전통 색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9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환경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참여 경험이 풍부한 지미영·정승훈 강사와 그림책을 통해 배우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8월13일부터 10월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여수시립도서관 누리집(yslib.yeosu.go.kr) 내문화프로그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20~30명 내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순신도서관(061-659-2862), 환경도서관(061-659-48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여서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도로변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전 시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18일까지

여수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1월18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도입, 8월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선 시행한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응답도 가능하며 이후 진행하는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와 중

점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아·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10월15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할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군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벼 방제 기간 운영... 약제 지원 등 병해충 피해 최소화

여수시가 다음달 11일까지 벼 기본 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 기술 및 방제 약제 지원에 나섰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으며 실제로 벼 재배단지 일부에서 잎집무늬마름병과 잎도열병, 흑명나방 피해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반·친환경 벼 857ha에 대해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한편 벼 재배단지에 대한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061-659-44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적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목도열병, 이삭도열병으로 진전돼 쌀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제약제를 살포하고, 잎도열병이 심한 논과 잎 색이 진한 논은 이삭거름 사용 시 염화칼리만 3~4kg/10a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서동 새마을부녀회, 깨끗한 동네 만들기 활동

여수시 여서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명야)가 오랜 장마로 무성하게 자란 도로변 잡초를 제거하며 쾌적한 동네 만들기에 나섰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부녀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잡초 제거 및 낙엽 정리, 교통표지판 이물질 제거 등 관내 도로변을 일제히 청소해 인

근 상가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명야 회장은 "도로변 잡초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나서게 됐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깨끗한 여서동 만들기에 함께해 준 회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재가 의료급여 확대...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의료·돌봄·식사 지원 서비스 서비스한도 60만원→72만원 ↑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관리

여수시가 의료기관 장기입원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 복귀·정착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입원 중이었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본인의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받게 된다.

여수시는 현재 25명이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달 말 9명이 서비스 종결될 것으로 예상, 장기입원 퇴원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시는 '1개월 장기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 한도금액을 월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20% 인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된 만큼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분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으로 확대됐다.

여수=이경기 기자